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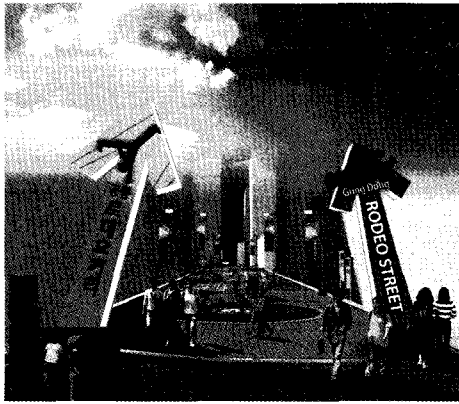
# 걷고싶은 공동 차없는 거리 ‘젊음의 열기 물씬’

“젊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동  
차없는 거리에서 만나요”

대학생들로 북적이는 유성구 공동 대학로가 연중 젊음의 낭만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중심공간으로 거듭난다.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유성의 대표적인 젊음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한 공동 차없는 거리 1단계 조성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전국 제일의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밑그림이 가시화되면서 활력있는 거리로 변신하고 있다. 공동은 1980년대 이후 충남대를 비롯해 대덕연구단지개발로 유성의 중심 축을 형성하면서 1994년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한때 최고의 상권을 누린 지역이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메카인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해 목원대, 한밭대, 침례신학대, 대덕대 등이 인근에 위치, 대전의 대표적 대학가로 자리잡으며 대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 상권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계룡산국립공원, 엑스포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천혜의 라듐 온천장을 비롯해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유성5일장이 지척에 있어 신·구 문화가 잘 조화된 곳으로 저렴하면서도 독특한 맛집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미식가들이 즐겨찾는 맛집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들어서는 어은동에 국제화촌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내·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이해의 장으로 탈바꿈되고 있어 걷고싶은 거리, 다시 찾고싶은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2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된 차없는 거리 1



단계사업은 일명 로데오거리로 불리는 궁동 410번지선 도로로 길이 108m, 폭 10m로 조성됐다.

입구에 들어서면 ‘걸어 가세요’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오고 세련된 현대미를 자랑하는 화살표 모양의 상징 조형물(3식)이 세워져 문화예술의 향기가 솔솔 풍기는 활력있는 거리, 젊음의 공간임을 알린다.

교육의 도시로써 대학로를 연상케하는 유성 소재 10개 대학을 대표하는 다양한 상징물들이 구간 곳곳에 세워졌고 연중 젊음의 끼와 열정을 맘껏 펼치며 즐길 수 있는 간이 공연무대가 새롭게 들어서는 등 젊음의 명소로 새단장됐다.

도시디자인을 갖춘 포스터 게시판과 배너 설치대를 비롯해 야간 조명등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길손들을 유혹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길바닥에는 궁동 거리의 특색을 갖춘 다양한 문양의 바닥그래픽이 새겨져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 새로운 볼거리를 자랑하며 내방객들을 잡아끈다. 장기적으로 2단계사업이 가시화되면 이곳 궁동 일대는 그야말로 4계절 내내 각종 창작무대와 예술공연의 향연이 끊이지 않고 다채로운 체험거리까지 더해져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가 문화예술축제가 활발했던 웃골공원을 중심으로 부담없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도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학생들로 주축이 된 각종 동아리모임을 중심으로 청소년단체, 문화예술인 동호회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축제를 비롯해 공연, 전시, 퓨전음악, 댄스, 길거리 퍼포먼스, 어울림마당 등 청소년들의 끼와 정열을 맘껏 발산할수 있는 젊음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절별 크고작은 축제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온천2동 마을회가 주관하는 온이사랑 페스티벌, 청소년 문화존 행사, 어울림 마당 등 부담없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자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하는 오감만족의 크고작은 축제가 연중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들의 화합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단계별로 확대 추진해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해 연중 문화와 공연이 아우러지는 활력있는 젊음의 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